

한국어의 타동성 발현 양상 분석*

이영준**

차 례

1. 서론
2. 한국어의 타동성
3. 화자의 타동성 인식 분석
 - 1) 실험 설계
 - 2) 데이터 분석 일반
 - 3) 타동성 분석 및 활용
4. 결론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타동성의 의미를 정립하고 그 발현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타동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한 이영준(2016)의 후속 연구로서 그 연구 대상을 한국어 화자까지 넓혔다. 본 조사에서는 ‘-을/를’의 사용 여부를 통해 타동성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이 담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위자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과 ‘-이/가’와 ‘-을/를’을 모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2069189)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두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타동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 먼저 행위자의 존재 유무가 타동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맥락이 제거된 상황에서 행위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을/를’을 선택하는 양상이 달라졌다. 또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상태]의 의미에 따라 타동성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타동성의 발현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비록 예측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빅데이터 구축, 조사 문항의 고도화와 함께 기계학습을 적용한다면 하나의 평가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타동성, 행위자, 자동사, 타동사, 상태, 어휘의미지식,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서론

본 연구는 타동성의 의미를 정립하고 그 발현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타동성은 의미 속성으로서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역학 관계와 그 정도를 표현한다. 정도성을 갖는 타동성으로 인해 화자들은 자타동사, ‘-을/를’ 등의 문법적 표지와 같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택 과정은 언어마다 상이하고 그 체계가 다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타동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한 이영준(2016)의 후속 연구로서 그 연구 대상을 한국어 화자까지 넓혔다. 본 연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 체계와 언어 지식 사이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는 각 개인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지식을 저마다 다르게 구성한다.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의 타동성으로, 그리고 어떤 문법 표지를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타동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장의 범위를 넘어 발화 맥락을 살펴야

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화자가 상황과 맥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자의 발화 양상을 살핌으로써 타동성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에 대한 화자의 선호도를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선호도는 발화 맥락을 화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타동성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타동성의 의미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력 발달에 따라 어떠한 문법 표지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변화가 있는지 살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타동성을 다룬 선행연구들과 이영준(2016)의 연구 결과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동성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타동성 인식 양상이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2. 한국어의 타동성

Hopper & Thompson(1980)은 세계 언어들 분석한 결과 타동성이 언어 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동성이 있고 없음의 이분법적 분석이 아닌 높고 낮음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타동성에 대한 기술은 문법 이론마다 상이한 관점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대립, 능동과 수동의 변환, 목적어의 존재 유무, 행위자의 자질 등과 같은 복잡한 언어 현상을 풀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제시해 왔다.

<표 1> 타동성에 대한 각 문법의 정의¹⁾

구 분	Chomsky 문법	격문법	관계문법
타동성	구조적 개념 VP내에서 V에 의해 지배되는 성질	논항 명사들과 동사의 관계	문장성분에 관계를 부여하여 타동성 파악
한 계	동사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많은 예외 생성	명사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므로 타동성의 의미 제약	문장 성분의 관계가 변화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타동성을 정의 내린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동성은 의미 범주에 해당하며 동사 이외의 성분에서도 발견된다. 다음으로 타동성은 술어 중심의 개념이며 문장 성분들을 조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타동성은 주체 중심의 개념으로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타동성은 행위 또는 상태 변화의 강약을 나타내는 높고 낮음의 정도성을 갖는다.³⁾

이러한 타동성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문법 표지는 행위의 대상을 표현하는 목적격이다. 그러나 의미 범주인 타동성을 자동사-타동사의 문법 범주로 한정시키기에는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 모두를 갖는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⁴⁾

- 1) 김종도, 「타동성에 관한 문법이론들의 견해들」, 『論文集』 13, 水原大學校, 1995, 39-55쪽.
- 2) 김종도는 문장의 다른 요소, 주어, 목적어의 자질의 영향, 화자의 판단력, 맥락적 요인을 고려할 수 없는 데서 많은 예외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도, 앞의 논문, 43쪽.
- 3) 이영준, 「한국어 학습자의 타동성 인식 조사」,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2016, 215-238쪽.
- 4) Perlmutter와 Perlmutter & Postal은 자동사 중에서 능격성을 가지는 동사들, 주어에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타동사 구문도 불가능한 동사들을 비대격 동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주어의 자리에 행위자가 위치하는 자동사들과 행위의 경험자가 위치하는 자동사들을 비능격 동사로 분류하였다. 이와 달리 Dixon은 이러한 현상을 언어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능격성이나 대격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휘 내부의

- (1) a. 자동차가 움직인다.
 b. 돌이 움직인다.
 c. 자동차가 멈춘다.
 d. 돌이 멈춘다.
- (2) $\rho(P1T)\emptyset\Delta^5$

(1)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동사 구문이며 그 의미를 (2)와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움직이다’, ‘멈추다’의 의미 안에는 움직이고 멈추도록 만드는 ρ 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행위자 $\emptyset\Delta$ 가 존재한다. (1)의 문장들은 ‘-을/를’을 사용하여 상응하는 구문을 만들 수 있고, 그 의미도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김문오(1997)은 자타 양용동사를 구분 지으며 자타 양용동사 범주에 들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⁶⁾ 고흥주

의미 문제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Kuno & Takami는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의 그 격 형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논항, 즉 동작과 변화를 겪게 되는 대상 논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생겼다고 말한다. Perlmutter, D.,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Jaeger J.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978, pp. 157~189. Perlmutter, D. and Postal, P. M., “The L-Advancement Exclusiveness Law”, in Perlmutter, D. and Rosen, C. (eds.)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II*. 30~8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Dixon, R. M. W., *Erg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Kuno, S and Takami, K., *Functional Constraints in Grammar on the Unergative-unaccusative Distin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2004.

- 5) Shaumyan의 연산생성문법에서 사용되는 형식화 과정으로 T는 객체(자동차, 돌, 무릎)에 해당하며 P1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 술어, 즉 자동사(움직이다, 다치다)에 해당한다. ρ 는 사동성, [CAUSE]의 의미를 가지며 $\emptyset\Delta$ 는 대역 단위로서 의미는 없지만 행위자의 존재를 가리킨다. Shaumyan, S., *A Semiotic Theor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 Press, 1987.
- 6) 첫째, 자/타 용법 간에는 동사가 가진 기본적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 둘째, 자/타동사의 초분절음소(고저, 장단)가 일치해야 한다. 셋째, 동일한 명사구를 자동구문의 주어와 타동구문의 목적어로 공통으로 취하는 요건을 갖추든지, 아니면 동일한 명사구를 자/타동구문의 주어로 공유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타동구문의 의미 속에 자동구문의 의미가 함의되어야만 한다.

(2001)은 일부 자동사 부류의 논항이 타동사의 목적어 논항과 동일한 의미·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능격성으로 설명하였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바로 타동성에 정도성을 설정해 놓는 것이다. 우형식(1992)는 타동성이 타동구문을 이루는 각 구성 성분의 성분 의미와 이들 사이의 관계의미로 실현되는 의미요소의 복합체로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연속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연재훈(1997) 역시 타동성에 대한 형식적 정의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비전형적 구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원형이론적 방법론에 입각한 타동성의 정의를 모색하고 있다. 유형론적으로 다양한 예들을 타동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설명함으로써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범주 속에서 ‘정도성’과 ‘연속체’의 개념을 갖는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1)의 문장들은 여러 이론에 기반한 통사적 분석, 또는 어휘 의미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타동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 체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영준(201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타동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동과 타동의 개념을 확립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동일한 동사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이/가’, 또는 ‘-을/를’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장 발화시 행위자의 존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을/를’은 타동성 발현의 대표적 표지로 학습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을/를’의 선택 여부를 행위자의 존재 유무에 기초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을/를’을 사용한 경우 해당 문장의 의미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행위의 대상을 ‘-을/를’로 구체화함으로써 타동성이 더 강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타동성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 지식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움직이다’의 경우 자동사에 해당하지만 학습자 모국어(러시아어)에서는 재귀동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모국어 지식이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영준(2016)에 대한 후속 연구로 연구 대상을 한국어 화자들까지 확대하였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비교하여 타동성에 대한 인식 양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3. 화자의 타동성 인식 분석

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조사 참여자는 한국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타동성 발현 양상 분석에 있는데 20~40대 성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변화도 살피기 위해 대상을 상세하게 구분하였다.⁷⁾

<표 2> 조사 참여자

구 분	인 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초·중급)	48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고급)	33
한국인	30

조사 문항은 그림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각 항목마다 조사 참여자들이 행위자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이/가’와 ‘-을/를’이 모두 사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한국어 화자에게는 타동성의 정도가 측정 가능한 것인지 살피기

7)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은 몽골, 미국, 미얀마, 베트남, 불가리아,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터키, 폴란드, 필리핀, 헝가리이며, 초·중급은 2~4급, 고급은 5~6급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위해서 물체의 에너지, 속도 등을 답하는 문항이 별도로 제시되었다.⁸⁾

조사 참여자의 응답을 살핀 후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고자 했으며 선정된 요인을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 도구로 R을 사용하였다.

2) 데이터 분석 일반

본 조사에서는 ‘-을/를’의 사용 여부를 통해 타동성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가’와 ‘-을/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동사를 제시함으로써 조사 참가자의 선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 조사 참가자들이 답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위자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 a. 돌_ 움직입니다. b. 돌_ 움직입니다. c. 선생님은 돌_ 움직입니다.

<그림 1> 돌의 움직임

동사 ‘움직이다’를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고, 빈칸에 ‘-이/가’와 ‘-을/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그림

8)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는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은 온라인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림과 문장을 제시한 후 ‘-이/가’와 ‘-을/를’이 모두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어떤 문법 요소를 더 선호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은 돌이 경사진 곳에서 굴러 떨어지는 상황이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행위자를 제시하였으며, 세 번째 그림의 문항에서는 행위자를 문장 내 함께 제시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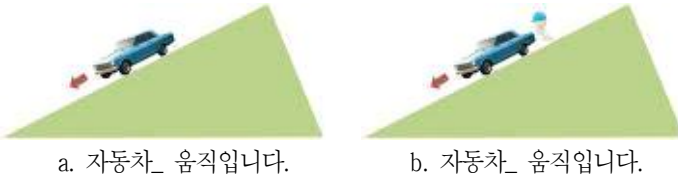
<그림 2> ‘움직이다’에 대한 ‘-을/를’ 응답 결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조사 참여자들이 세 번째 그림으로 갈수록 ‘-을/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졌다. 한국인의 경우 첫 번째 그림은 ‘-을/를’ 대신 ‘-이/가’를 선택하였고, 그림과 문장에서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을/를’을 선택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숙달도에 따라 고급일수록 한국어 화자의 양상을 따르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타동성의 발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행위자의 존재라는 점이다. ‘돌이 움직이다’와 ‘돌을 움직이다’,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자·타동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두 문장 사이의 의미 공백이 커 보인다. 그 공백은 바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주체이며, 행위자의 존재를 비명시적으로 ‘-을/를’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문장에서 행위자가 문장 성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는 모두 ‘-을/를’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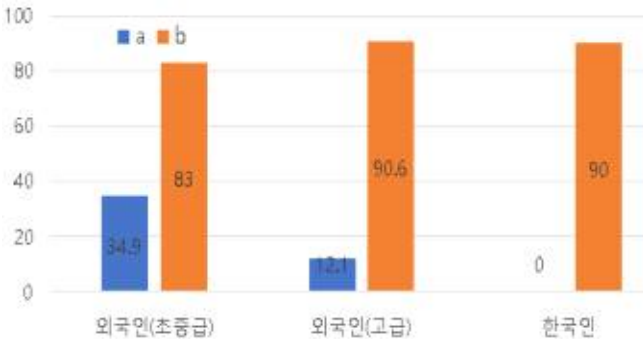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문법

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비록 ‘-을/를’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한국어 화자처럼 하고 있지는 못하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타동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문법 교육에 있어 타동성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와 메커니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 자동차의 움직임

앞서 제시한 동사와 같은 ‘움직이다’이지만 그 대상을 자동차로 바꿔 제시하였다. 자동차는 돌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 체계를 가지고 있다.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운전자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엔진과 바퀴의 구동 체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조사 참여자의 판단에 변수를 주기 위해 경사가 있는 곳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림 4> ‘움직이다’에 대한 ‘-을/를’ 응답 결과(%)

<그림 4>를 보면 행위자가 제시된 두 번째 그림에서 ‘-을/를’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첫 번째 그림에서 모두 ‘-이/가’를 선택하였으나 두 번째 그림에서는 90.0%가 ‘-을/를’을 선택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초중급에서 한국어 화자의 선택과 다른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한국어 화자는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을/를’을 사용하였는데 앞선 돌의 움직임과는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1>의 b에서 ‘-을/를’의 응답률은 93.3%였으나 <그림 3>의 b에서는 90.0%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사 참여자의 판단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동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림 3>에서 자동차의 구동체계, 뒤에서 미는 사람, 경사진 땅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한국어 화자는 뒤에서 미는 사람을 행위자로 보지 않았다. 경사진 곳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을/를’ 대신 ‘-이/가’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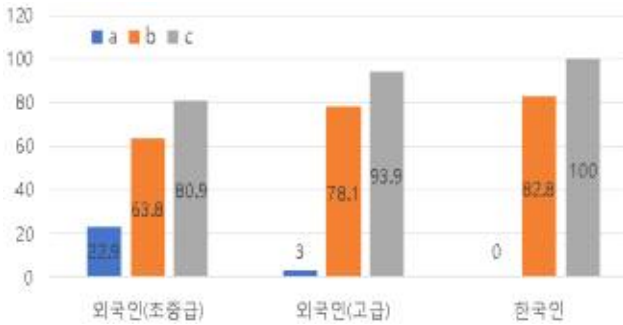
이와 달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초중급 학습자의 경우 70.2%에서 83.0%, 고급 학습자의 경우 81.3%에서 90.6%로 응답률이 한국인과 반대로 증가하였다. 행위자의 존재가 ‘-을/를’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바 문법 규칙을 충실히 지키고자 하는 외국어 학습자의 특성이 이러한 응답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문장 내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림 속 행위자를 내재하는 주어로 생각하여 ‘-을/를’의 응답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 자동차_ 멈췄습니다. b. 자동차_ 멈췄습니다. c. 슈퍼맨이 자동차_ 멈췄습니다.

<그림 5> 자동차의 멈춤 1

독립적인 구동 체계를 갖는 자동차의 움직임과 멈춤을 비교하기 위해 <그림 5>를 제시하였다. a에서는 자동차만, b에서는 자동차와 멈추는 슈퍼맨을 제시하였고, c에서는 문장 내 슈퍼맨을 주어로 표현해 놓았다. 세 그림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그림은 b로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슈퍼맨이 자동차를 멈추었거나 운전자가 슈퍼맨을 보고 자동차를 멈추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6> ‘멈추다’에 대한 ‘-을/를’ 응답 결과(%) 1

<그림 6>을 보면 세 번째 그림으로 갈수록 ‘-을/를’의 응답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예상대로 다른 두 그림과 달리 두 번째 그림에서 엇갈린 응답자가 있었다. 82.8%의 한국인 조사 참여자가 ‘-을/를’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숙달도가 높을수

록 ‘-을/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졌다.

한국어 화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주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100%의 ‘-을/를’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가’가 사용되면 비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5>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응답률이다. 82.8%의 참여자들이 ‘-을/를’을, 나머지는 ‘-이/가’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 그림은 ‘슈퍼맨의 힘으로 자동차가 멈췄다’, 또는 ‘슈퍼맨을 보고 자동차가 멈췄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이중적인 의미에 들어 있는 공통적인 속성으로 [상태(state)]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한다면 [동작(action)]의 의미를,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상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림 5>의 b에서보다 <그림 1>의 b에서 ‘-을/를’의 응답률이 높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동사 ‘멈추다’의 의미 속성 중 [상태]를 들 수 있다. [상태]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경우 타동성이 덜 발현되며 ‘-을/를’의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두 번째 그림에서 ‘움직이다’의 ‘-을/를’ 사용률보다 ‘멈추다’의 ‘-을/를’ 사용률이 줄어들었다. 초중급은 6.4% 포인트, 고급은 3.2% 포인트만큼 수치가 감소했다. 학습자들의 모국어 영향, ‘움직이다’와 ‘멈추다’에 대한 이해도 등 여러 변인들을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앞서 설명한 [상태]의 의미적 속성도 그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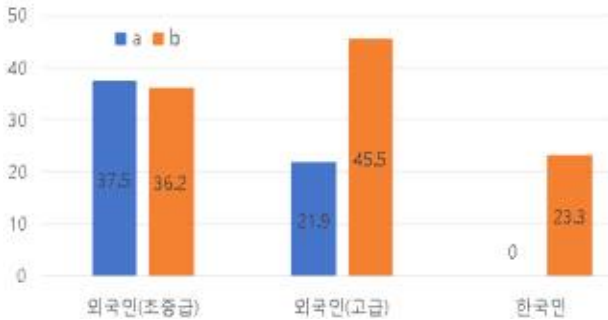


a. 자동차_ 멈췄습니다.

b. 자동차_ 멈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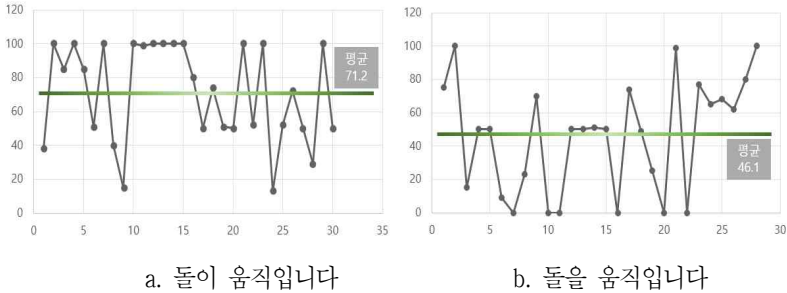
<그림 7> 자동차의 멈춤 2

<그림 7>에서는 장애물 때문에 자동차가 멈춰 있는 상황과 소를 앞에 두고 자동차가 멈춰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행위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참여자들이 ‘-을/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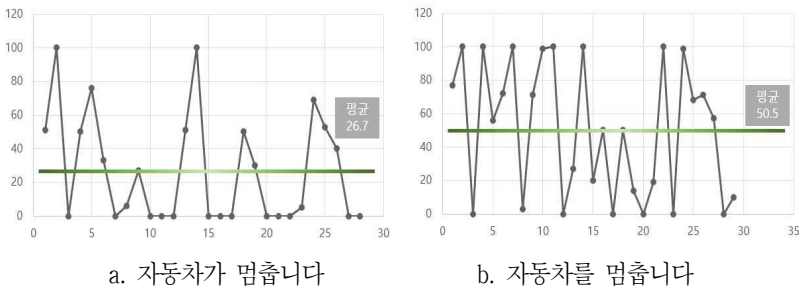
<그림 8> ‘멈추다’에 대한 ‘-을/를’ 응답 결과(%) 2

<그림 8>을 보면 ‘-을/를’의 사용률이 모두 50%를 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을/를’보다 ‘-이/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 대부분이 행위자를 상정하지 않고 자동차의 멈춘 [상태]에 초점을 맞춰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 ‘-을/를’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자동차 내에 있는 운전자를 행위자로 판단하여 결정 내린 것으로 보인다. ‘멈추다’에 대한 한국어 화자의 인식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움직이는 돌’의 에너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동성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미적 속성인 타동성은 그 수치를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바뀌서 측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맥락을 제거한 상황에서 문장만 제시되었다. 움직이는 돌에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에너지의 양을 1~100 중에서 수치화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9>의 a에서 돌의 에너지는 평균 71.2(표준편차 28.84), b에서 돌의 에너지는 평균 46.1(표준편차 33.43)으로 나타났다. b의 수치가 낮은 것은 행위자의 에너지와 분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0> ‘멈추는 자동차’의 속도

<그림 10>에서는 멈추는 자동차의 속도를 생각하여 그 속도를 0~

100 중에서 수치화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0>의 a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평균 26.7(표준편차 32.39), b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평균 50.5(표준편차 40.00)으로 나타났다. b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행위자의 멈추고자 하는 정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와 <그림 10>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을/를’의 사용, 즉 타동성에 정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휘 의미 요소 내 타동성의 유무로만 구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말뭉치와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 타동성의 스펙트럼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타동성 분석 및 활용

본 연구를 통해 타동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의 존재 유무가 타동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맥락이 제거된 상황에서 행위자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그림만 보고도 ‘-을/를’을 선택하는 양상이 달라졌다. 또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상태]의 의미에 따라 타동성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단어의 어휘 의미 요소뿐만 아니라 함께 결합되는 문법 요소들을 분석함에 있어 타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밝힌 타동성의 개념들이 어학적으로는 텍스트 의미 분석, 감성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학적으로는 학습자의 이해도, 숙달도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타동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제 본 연구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앞서 타동성의 이해는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달리함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의 타동성 조사 결과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학습자

의 숙달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숙달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숙달도 예측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문항들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3~4개의 요인들이 추출 가능함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요인들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구분	RC1	RC2	RC3
<그림 1-a>	-0.30	-0.19	0.75
<그림 1-b>	0.01	0.81	-0.19
<그림 1-c>	0.83	-0.03	0.00
<그림 5-a>	-0.49	-0.23	0.60
<그림 5-b>	0.05	0.81	-0.01
<그림 5-c>	0.72	-0.07	-0.28
<그림 7-a>	-0.76	0.06	-0.07
<그림 7-b>	0.02	0.16	0.69
<그림 3-a>	0.02	-0.22	0.61
<그림 3-b>	-0.03	0.80	-0.05

<표 3>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의미한 항목들을 3개의 범주로 선별할 수 있었는데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범주별 항목

구분	항목
RC1	- 선생님은 돌__ 움직입니다.<그림 1-c> - 슈퍼맨이 자동차__ 멈췄습니다.<그림 5-c>
RC2	- 돌__ 움직입니다.<그림 1-b> - 자동차__ 멈췄습니다.<그림 5-b> - 자동차__ 움직입니다.<그림 3-b>
RC3	- 돌__ 움직입니다.<그림 1-a> - 자동차__ 멈췄습니다.<그림 7-b>

RC1은 행위자가 그림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함께 제시된 경우이고, RC2는 문장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림에서 행위자가 제시된 경우이며, RC3는 행위자가 그림과 문장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요인 분석 결과는 당초 문항 설계의 분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요인분석을 통해 관련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RC2 범주의 항목을 가지고 회귀분석과 함께 예측을 시도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측치가 있는 조사 참여자는 목록에서 제외하여 총 78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독립변수로는 '돌_ 움직입니다', '자동차_ 멈췄습니다'에 대한 응답 결과, 종속변수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설정하였다. 이 항목들의 응답률이 조사 참여자의 한국어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트레이닝세트는 78명의 데이터세트 중에서 50명, 테스트세트는 28명으로 설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0.3%에 해당하는 정분류율을 보였다.

상당히 낮은 예측률을 보인 이유는 먼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응답 데이터가 '-이/가'와 '-을/를'의 단순한 이산형 데이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타동성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만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나 앞으로 의미적 속성에 따라 타동성 척도가 개발되어 활용된다면 예측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타동성에 대한 인식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그 의미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타동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 먼저 행위자의 존재 유무가 타동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맥락이

제거된 상황에서 행위자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그림만 보고도 ‘-을/를’을 선택하는 양상이 달라졌다. 문장 주요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객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또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상태]의 의미에 따라 타동성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적 속성은 행위의 진행과 완료의 의미 등 상(aspect)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단어의 어휘 의미 요소뿐만 아니라 함께 결합되는 문법 요소들을 분석함에 있어 타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역동적인 메커니즘은 타동성으로 발현되며 높고 낮음의 정도성이 발견된다. 이처럼 높고 낮은 정도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본 연구에서 구분이 가능함을 밝혔다. 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제가 개발된다면 감성분석과 같은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타동성의 발현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항목들로 숙달도를 예측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예측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빅데이터 구축, 조사 문항의 고도화와 함께 기계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평가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 김종도, 「인지 문법의 타동성 모형」, 『論文集』 14, 水原大學校, 2008, 15-34쪽.
- 김종도, 「타동성에 관한 문법이론들의 견해들」, 『論文集』 13, 水原大學校, 1995, 39-55쪽.
- 김종도,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6, 261-334쪽.
- 김혜숙 외, 『문법교육과 텍스트의 만남』,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 김혜정,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적 상호 작용」, 『國語教育學研究』 15, 국어교육학회, 2002, 273-317쪽.
- 남승호,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양정석,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1995.
- 연재훈,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 한국언어학회, 1997, 107-132쪽.
- 오충연, 『주제구조론』, 월인, 2001.
- 우형식, 「국어 타동구문의 구조 분석(1): 구성 성분의 통합관계를 중심으로」, 『外大論叢』 10, 부산외국어대학교, 1992, 385-419쪽.
- 우형식,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1996.
- 이경화,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8.
- 이영준, 「타동성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 42, 한국어의미학회, 2013, 515-535쪽.
- 이영준, 「한국어 학습자의 타동성 인식 조사」,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2016, 215-238쪽.
- 이지수, 「타동성과 국어 사동표현의 의미」, 『어문연구』 3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145-170쪽.
- 주세형,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역락, 2006.
- Dixon, R. M. W., "Ergativity", *Language* 55(1), 1979, pp. 59-138.
- Dixon, R. M. W., *Erg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Fillmore, C. J., "The case for case" In: Bach, E., Harms, R.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New York, 1968.

- Hopper, P and Thompson, S. A.,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1980, pp. 251-299.
- Kuno, S and Takami, K., *Functional Constraints in Grammar on the Unergative-unaccusative Distin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2004.
- Levin, B. and Rappaport H.,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MIT Press, 1995.
- Perlmutter, D.,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Jaeger J.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978, pp. 157-189.
- Perlmutter, D. and Postal, P. M., "The L-Advancement Exclusiveness Law", in Perlmutter, D. and Rosen, C. (eds.)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II*. 30-8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Shaumyan, S., *A Semiotic Theor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 Press, 1987.
- Smith, C. S., "Jespersen's 'move and change' class and causative verbs in English", *Linguistic and literary studies in honor of Archibald A. Hill*. vol 2, The Hague: Mouton, 1978.

■ Abstract

The Aspects of Transitivity in Korean Language

Lee, YoungJu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transitivity, and analyzes the recognition system of Korean speakers and foreign Korean learners. This study is a follow-up to Lee(2016), that analyzed how foreign Korean learners perceive transitivity, and expanded the scope of the research to Korean speakers. This survey tried to identify the concept of transitivity through the use of ‘-eul/leul’. A picture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nt and the object and verbs that could use both ‘-eul’ and ‘-leul’ were presented so that the survey participants could accurately grasp the situation of the discours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points were able to be inferred regarding transitivity. First of all, the presence of agents was affecting the expression of transitivity. The choice of ‘-eul/leul’ var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the agent. It also showed that the transitivity was affected by the meaning of [status] when delivering information about the object. Finally, through the expression of transitivity, we found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the ability of Korean language learners. Although the predictive value was not high, it could be a good evaluation tool if big data is built well in the future and machine learning is applied.

Key words : transitivity, agent, intransitive verb, transitive verb, state,
lexico-semantic knowledge, logistic regression

투고완료일 : 2020. 5. 20. 심사완료일 : 2020. 6. 16. 게재확정일 : 2020. 6. 22.